

“내년에 또 만나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성료’

3년 만에 개최...여름 대표축제로 건재함 과시 저렴한 이용료에 수익금 기탁하는 착한 축제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8월 7일 대안원의 막을 내렸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물축제는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로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축제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확대하며 2번의 주말을 끼고 행사가 진행된 점도 주말 관광객을 유입에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올해 물축제는 ‘장흥, 물과 사람을 연결하다’ 이란 주제로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졌다. 장흥군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축제에 역사와 문화의 색채를 덧입히는 데 공을 들였다.

개막 첫날 진행된 삼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공예태후 호위행렬을 재현한 역사 테마 프로그램으로 연출됐다. 고려 공예태후를 배출하며 장흥이란 지명을 얻게 된 역사적 배경을 모티브로 물싸움 거리행진을 진행한 것이다. 군민회관 앞에서 출발한 퍼레이드 행렬은 관광

객과 지역민이 어우러진 가운데 신나는 물싸움을 벌이며 물축제장으로 이동했다.

매일 오후 2시, 지상 최대 물싸움장에서는 신나고 흥이 넘치는 물싸움이 펼쳐졌다. 이어진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은 지상 최대의 워터 붐 물풍선, 물폭탄 싸움으로 분위기가 이어졌다.

물축제의 야간 프로그램으로는 워터樂풀파티가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워터樂관파티는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준급 풀파티지만 입장료가 없고, 유명 DJ들이 라인업을 구성한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물축제만의 장점으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이용료가 1천원에서 7천원 사이인데다가, 이용객에게는 2천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되돌려 줘 지역 내 재소비를 이끌어 냈다.

지역 상인들은 몇 배로 늘어난 매출에 고무



된 모습이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마트 등은 물론 여름 용품을 판매하는 문구점, 의류매장 등도 축제 기간 내내 문전성시를 이뤘다.

축제장 환경정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도 빛났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새벽 6시부터 10개가 넘는 자원 봉사팀이 행사장 청소를 실시했다. 군수와 군의원, 지역 도의원에 군청 공무원까지 합세한 청소 봉사로 축제 기간 내내 깨끗하고 안전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물축제는 매년 행사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축제로 알려져 있다. 올해도 유니세프 물부족 국가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물이 가진 문화·생명·놀이의 의미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도록 계획했다”며, “장흥 찾아주시는 관광객들과 물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땀 흘린 자원봉사자, 지역민, 공무원 모두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자연그대로미(米) 수출 확대 협약 체결

2022년까지 1000톤 지속적 수출기로

완도군은 8월 2일 완도군청에서 러시아 사할린주에 소재한 ㈜베들레헨사, 완도농협과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米)’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베들레헨사 장용운 대표, 김진수 농협완도군지부장, 김미남 완도농협조합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수출 협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100톤 이상, 총 1000톤(30억 원 상당)을 러시아 사할린주로 수출하기로 했다.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지난 2018년 할랄 인증을 받아 말레이시아에 첫 수출했으며, 2019년도에 미국, 2020년도에는 농산물 우수 관리(GAP) 인증을 받아 러시아까지 수출국이 확대됐다.

러시아 교민들에게는 고국에서 건너 온 품질 좋은 쌀로 인정받고 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할린주에 총 7회, 116톤을 수출했다.

이번 수출 협약으로 완도 쌀 품질 입증은 물론 농민들은 수출 판로 걱정 없이 쌀 생산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쌀 재배 및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여 소비자에게는 밥맛이 좋은 쌀, 농업인에게는 재배 안정성 및 품질이 뛰어난 쌀로 알려져 있는 ‘새청무’를 수출 품종으로 도입·생산하여 수출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오염되지 않는 토양과 깨끗한 공기와 물,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 등 완도의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해초 액비, 규산 액비 등 ‘자연 그대로 농법’을 실천하여 쌀을 생산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그동안 공동 방제, 농자재 지원 등 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결과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결실을 맺었다”면서 “앞으로 쌀뿐만 아니라 색깔 보리, 밀 등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해양치유 먹거리로 제공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연일 폭염특보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주의하세요”

폭염 속 농작업 등 위험,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당부

진도군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말까지 온열 질환 응급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난 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폭염특보 등이 발령되고 있으며,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온열

질환자 증가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노인·농·어업인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체온 증가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에 대표적이다. 어지러움·발열·구토·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군은 폭염 대비 자주 물을 마시기, 가장 더운 낮 시간에는 장시간 야외활동과 논·밭 작업 자제하기,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기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더위와 탈수 증상에 취약하므로 습관적인 수분 보충이 필요하

고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특히 농어업인은 논·밭, 시설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매일 기온과 폭염특보 등을 확인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주위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119에 신고 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가족 목민관 청렴캠프 “강진, 또 올래요”

교과서에 나오는 ‘강진’ 찾는 전국 초등가족 150여 명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이 8월 4일부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2022년 가

족 목민관 청렴캠프’를 운영해 1박 2일 일종의 특별한 가족여행을 선사한다.

‘가족 목민관 청렴캠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교육으로 80명 모집에 전국 초등가족 326명이 신청해 4대 1의 경쟁률로 큰 인기를 모았다. 이에 군에서는 10월 초에 1회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총 150여 명이 캠프에 참여해 다산과 함께하는 즐겁고 유익한 가족여행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4년의 긴 기다림, 4배 더 행복했던 해남읍

해남읍민의 날 행사 성료

제18회 해남읍민의 날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대면행사로 지난 3일 개최됐다.

이만 오천 읍민들의 열띤 지지 속에 와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못 만났던 그리운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밝고 희망찬 해남읍의 미래를 향한 소중하고 유쾌한 화합의 한마당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읍민의 날에는 효자와 지역유공자 및 공로패 시상 그리고 민속·체육경기를 비롯한 읍민 화합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율

높이는 34개 마을이 참가하여 치열한 예선전을 치른 후 수성2리가 최종 우승하였다. 또한 여성승부차기는 월드컵을 방불케 하는 열띤 응원 속에 장활마을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마지막 순서인 읍민 화합 노래자랑은 가수 한복을 비롯한 초청 가수들의 공연과 예선을 거친 마을 대표들의 열창이 이어졌으며 그동안 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밝고 쾌적한 으뜸해남읍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으며, 경연결과 학동마을 명00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